

중재파 의원들, 안철수 중재안 거부 “전대 일정 협조 못해”

안 대표 “끝까지 가겠다”

오늘 당무위 소집 전대 절차 착수

반대파 “당무위 기습 소집은 꿈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1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와 관련, 중재안을 거부하고 통합 전당대회 강행을 위해 당무위원회를 소집하자 통합 반대파는 물론 중재파가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 중재파 의원에게 따르면, 안 대표와 중재파는 전날(10일) 오후 회동을 했고, 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자리에서 안 대표는 “많은 원외 지역위원장들도 (중재안에) 반대를 하고, 내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중간에 그만두면 혼란만 가중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것(기존 중재안) 말고 다른 중재안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나아가 안 대표는 오는 12일 당무위원회를 소집하며 통합 전당대회 개최 절차에 착수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 참여한 국내 기업의 서울 구로구 연구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가 남득이 안 된다”며 “이제 전당대회부터 통합 절차나 시기는 늦추기가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앞서 중재파는 안 대표의 당 대표직 조기사퇴 및 중립지대 원외인사를 통한 공정한 전당대회 관리를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안 대표의 거부로 중재는 일단 물거품이 됐다.

이에 ‘중재’ 역할을 해왔던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철수 대표가 추진하는 전당대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른 중재파 의원도 “(다른 중재안을) 이제 찾아

봐야 하는데 추가로 뭐가 있겠나.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생각했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안 대표의 이 같은 통합 일정 강행은 통합 반대파 의원 모임인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의 반발을 불렀다. 운동본부 대변인인 최경환 의원은 논평을 내고 “기습적으로 당무위를 소집해 자파 일색으로 전준위를 구성하고, 당연직 대표당원을 중심으로 전당대회 정족수를 채우겠다고 한다”며 “지역위원회 선출직 대표당원 교체까지 시도하고 있다. 정당사에 유례가 없는, 참모도 황당하고 낯 뜨거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당권파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전당대회 의결정족수를 채울 자신이 없다 보니, 대표당원 모수를 최대한 줄이고 대표당원을 자파 일색으로 바꾸려는 꿈수를 동원하려는 것이다. 모수를 5000명까지 줄인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대표와 당권파는 최근 12개 지역위원장을 자파 일색으로 새로 임명해 대표당원을 확대해 왔다. 최고위원회의와 주요 당직자, 조강특위, 지역위원장 선임까지 모두 자파 일색으로 임명했다”며 “또, 자신의 지지자들 중에서 대표당원 희망자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당정치, 대의정치를 뿌리 채 부정하는 독재적 행태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통합 반대파인 박지원 전 대표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안철수 대표가 MB(엘비)의 아바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저분이 유승민 아바타구나. 이렇게 알고 있다. 시키는 대로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유승민 대표와 독대하고, 사퇴하지 말라고 하니 ‘사퇴 않겠다’, 중재안을 비판하니 ‘거부하겠다’, 통합에 속도를 내자고 하니 ‘당무회의 소집 지시’ 등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유 대표가 시키는 대로 하는 모습이 처량하기까지 하다”고 썼다.

박지원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의당 내 통합반대파 의원들이 11일 광주시 서구 지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보수야합 저지·국민의당 정체성 지키기 광주·전남 당원 간담회’에 참석, “통합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장병완 “안철수, 보수 대선후보 되려고 통합 시도”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광주 DJ센터서 당원 간담회

국민의당 내 통합반대파 의원들이 11일 광주를 찾아 “안철수 대표의 ‘햇볕정책’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고, 오로지 대선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조배숙 대표와 최경환 대변인, 장병완, 박주현, 장정숙 의원은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당원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통합을 강행하는 안 대표를 향해 “MB 아바타이며 유승민 아바타”라고 비판했다.

조배숙 대표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안 대표의 허상을 적나라하게 보았다”고 말했다.

이어 장병완 위원장은 “안 대표가 호남을 외면하고 바른정당과 통합하려는 이유는 대선에 있다”면서 “안 대표는 다음 대선에 민주진보 세력 후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보수 쪽 대선후보가 되려는 것 이외에는 통합을 하려는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대변인 최경환 의원은

은 최근 논란을 일으켰던 햇볕정책 계승과 관련해 안 대표의 인식을 거론하며 비난했다. 최 의원은 “안 대표의 햇볕정책을 아주 단순하게 해석해 대북 강은 전술로만 보는 것 같다”며 “햇볕정책은 대북 관계가 가장 어려울 때 빛을 발하는 건데 안 대표는 어려울 때는 강경 쪽으로 가버린다”고 말했다.

비례대표로 통합반대파 최고위원인 박주현 의원도 “안 대표를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들은 햇볕정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대북관계도 노골적으로 비판적이다”면서 “햇볕정책의 계승지역인 호남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당원 약 500여명과 함께 통합 반대 관련 광주전남 당원간담회 가졌다.

한편, 이날 장병완 위원장은 지방선거 광주시장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뒤 “김동철 원내대표와 박주선 국회부 의장은 여전히 출마 여부를 놓고 고민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오광욱기자 kroh@kwangju.co.kr

트럼프 “北 대화 원하면 미국은 열려 있다”

文대통령과 통화...남북 대화 수순·방향 등 긴밀 협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 밤 문재인 대통령의 통화에서 “적절한 시점과 상황 하에서 미국은 북한이 대화를 원할 경우 열려 있다”고 밝힘에 따라 한미 정상이 기존의 ‘압박 공조’를 넘어 ‘대화 공조’ 모색에 나서 주목된다.

이날 밤 10시부터 30분 간의 통화에서 두 정상은 “남북대화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넘어 자연스럽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 간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며 향후 남북 간의 회담 진행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내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남북 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떤 군사적 행동도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고리로 한반도 정세가 대화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한미 정상이 본격적인 ‘보폭 맞추기’에 나선 모양새로 풀이된다.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라는 ‘두 트랙’을 활용,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해내는 쪽으로 전략적 목표를 잡고 ‘평창 이후’까지 감안하며 대화의 수순과 방향을 놓고 긴밀한 조율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남북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고, 나아가 북 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대화에 임하는 북한의 ‘진정성’에 여전히 의구심을 표하면서도 일단 문 대통령이 대화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 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라는 특정 이벤트를 계기로 마련된 남북 대화는 북미 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내는 데에 관심이 있다. 핵·미사일 프로그램 동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북한은 지금까지 핵 문제를 미국과 직접談判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는 점에서 비핵화 이슈를 ‘서울(남북대화)’을 거쳐 ‘워싱턴(북미대화)’으로 가는데 동의할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다만 북한으로서는 국제적 고립과 제재구도에 서 탈피하기 위해 남북대화를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극적인 입장 변화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으로서의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협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위급 대북 특사 파견이나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제안과 같은 ‘특단의 카드’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쌍용자동차

인생. 가슴뛰게. 뜨겁게
OPEN

오른형 렉스턴 렉스턴 스포츠 탄생

Life is OPEN

LEXTON SPORTS

• LET 2.2디젤엔진2WD수동6단:복합11.0km/l(도심주행10.4km/l, 고속도로11.8km/l) 배기량-2,157cc1공차중량-1,990kgCO2배출량-176g/km4등급 • LET 2.2디젤엔진2WD자동6단:복합10.1km/l(도심주행9.2km/l, 고속도로11.4km/l) 배기량-2,157cc1공차중량-2,000kgCO2배출량-194g/km4등급 • LET 2.2디젤엔진4WD수동6단:복합10.7km/l(도심주행10.0km/l, 고속도로11.7km/l) 배기량-2,157cc1공차중량-2,090kgCO2배출량-181g/km4등급 • LET 2.2디젤엔진4WD자동6단:복합9.8km/l(도심주행9.0km/l, 고속도로10.9km/l) 배기량-2,157cc1공차중량-2,100kgCO2배출량-199g/km4등급 ▶ 본연비는프론트드라이브의안비로시도로상대, 운전방법, 차량제및및상태등에따라실용연비와차이가있습니다.

쌍용자동차 대리점이 참신하고 유능한 영업인력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아래 해당 판매점에 연락 바랍니다.

광주권	광주중앙 529-0003	서광주 383-3434	광주광산 952-3330	광주첨단 971-0990	광주빛고을 655-4001	광주백운 233-2311	
전남권	순천중앙 723-7100 (061) 화순 371-3555 함양 383-5811 진남진 542-5888	목포중앙 277-8000 장흥 863-2600 완주 554-4545 함평 324-3800	순천 745-3666 나주 334-2727 영광 353-9500 여수구룡 642-1400	여영보 683-1800 수암 473-3456 성성 852-2892 레 782-9300	목포하당 285-7576 강진 433-3100 서광양 761-8900	광양 791-0071 해남 537-3100 해안 454-0099	
광주운안	673-8900	나주혁신	331-1500	장성	395-0007	고흥	835-5050